

# 『陶靖節集』과 조선시대 自挽詩

-<擬挽歌辭三首>의 수용 경로를 중심으로-

임준철\*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조선시대 刊本 및 通行本에 수록된 도연명 <擬挽歌辭三首>
3. 조선시대 <擬挽歌辭三首>의 수용 경로와 자만시 창작
4. 남는 문제

## <국문초록>

도연명의 <擬挽歌辭三首>는 주로 조선시대 간행되거나 通行本으로 유통된 도연명 문집을 통해 조선시대 문인들에게 수용되었다. 중국본의 유입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간행된 도연명집의 판본은 전기가 5종, 후기가 2종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유형원 개인이 편찬한 필사본이 1종 전한다. 또 도연명의 문집은 아니지만, 그의 시와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가 전기 <擬挽歌辭> 수용에 一翼을 담당했다.

이 글에선 조선시대 刊本 및 通行本에 수록된 도연명의 <擬挽歌辭三首>에 대한 문헌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 작품이 조선 전기 문인들에게 수용된 경로와 그것이 자만시 창작에 미친 영향을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조선 전기에 비해 후기 간본이 가진 한계로 인해 후기 자만시 창작이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며, 전기의 경우 蘇軾의 和陶詩에 대한 주석과 비평서 성격의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가 도연명에 대한 재인식은 물론 자만시 창작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고려대학교

하지만, 조선시대 문인들의 도연명 <의만가사> 수용 경로가 모두 이같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또 이 글은 <의만가사삼수>에만 초점을 맞추어 검토했던 까닭에 거시적인 부분에선 충분한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조선 간본 도연명집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함께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핵심어 : 『陶靖節集』, 조선시대, 自挽詩, 陶淵明, <擬挽歌辭三首>, 『精刊補注東坡和陶詩話』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동아시아 自挽詩의 始原이라 할 陶淵明의 <擬挽歌辭三首>가 어떤 경로를 통해 조선시대 문인들에게 수용되고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문헌적 검토를 수행한 것이다. 자만시의 시적 계보에서 볼 때 도연명의 <擬挽歌辭三首>는 최초의 본격적 자만시로서 후대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시대 문인들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자만시라고 하면 자연 도연명의 <의만가사>를 떠올렸다. 따라서 그들이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이 작품을 수용하였는가는 조선시대 자만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필자는 조선시대 刊行되거나 通行되었던 도연명의 문집 및 관련 문헌들을 최대한 검토하여 이 방면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sup>1)</sup>

1) 이 글은 본래 도연명의 <의만가사삼수>와 조선시대 자만시를 비교하기 위해 기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고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수용 경로와 내용에 대한 문헌적 검토를 별도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글은 다음 논문과 함께 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줄고, 『陶淵明의 <擬挽歌辭三首>와 조선시대 자만시-韓中 자만시 비교 (1)-』, 『대동한문학』 제41집, 대동한문학회, 2014.12, 459-493면.

## 2. 조선시대 刊本 및 通行本에 수록된 도연명 <擬挽歌辭三首>

도연명의 문집은 중국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매우 다양한 판본들이 존재한다. 郭紹虞가 「陶集考辨」에서 기록한 것이 이미 149종에 이르며, 袁行霽는 200종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sup>2)</sup> 그 중 『文選』의 편찬자이기도 한 南朝 梁 昭明太子 蕭統의 八卷本이 가장 善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古本 중엔 蘇軾의 글씨(蘇體大字)를 刻한 것으로 추정되는 南宋 紹興本(紹興十年 『陶淵明文集』 十卷), 南宋 曾集本(曾集의 『陶淵明文集』 二冊) 정도가 전한다고 한다. 주석본으론 南宋 湯漢이 注를 단 『陶靖節先生詩』(四卷)와 元代 李公煥이 箋注한 『箋注陶淵明文集』(十卷) 등이 전하는데, 이 중 이공환의 『箋注陶淵明文集』(十卷)은 중국은 물론 조선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쳤다.

도연명의 <擬挽歌辭>는 <挽歌詩>, <挽歌>, <挽歌辭>, <擬挽歌> 등의 제목으로도 불리는 데, 모두 세 수로 이루어진 작품이다.<sup>3)</sup> 도연명의 문집에는 세 수가 실려 있지만, 『文選』 卷二十八 挽歌條에는 <挽歌詩>라는 제목으로 그 중 마지막 수만 실려 있다.<sup>4)</sup> 이밖에도 『初學記』, 『太平御覽』, 『古詩紀』(卷四十四),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卷十三),<sup>5)</sup> 『樂府詩集』, 『選

2) 郭紹虞, 「陶集考辨」, 『照隅室古典文學論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258-326면; 袁行霽 箋注, 「凡例」十三, 『陶淵明文集箋注』, 北京: 中華書局, 2003, 4면.

3) 자세한 내용은 王叔岷 撰, 『陶淵明詩箋證稿』, 北京: 中華書局, 2007, 496-497면을 참조할 것.

4) 蕭統 編, 『文選』, 李善 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1332-1337면.

5)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는 고려대학교 소장본으로, 南京大學校 域外漢籍研究所 金程宇 교수에 의해 처음 그 가치가 소개된 바 있다. 金程宇, 「高麗大學所藏『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及其價值」, 『稀見唐宋文獻叢考』, 北京: 中華書局, 2008, 170-192면. 이밖에 관련된 국내외 논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卞東波, 「韓國所藏孤本詩話《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考論」, 『域外漢籍研究集刊』 第五輯, 北京: 中華書局, 2009, 419-439면; 황선주·楊焄, 「한국본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校讀」, 『중국어문학논집』 제71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11, 347-368면; 홍서연, 「朝鮮本 <<정간보주동과화도시화(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에 대한 문헌적 고찰」, 『중국어논문총』 제54집, 중국어문연구회, 2012, 229-263면.

詩』(『風雅翼』) 등의 책에 이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sup>6)</sup> 唐 徐堅이 편찬한 『初學記』 卷十四 挽歌第十이나 元 劉履가 補註한 『選詩』 卷五 晉詩三 등에도 <挽歌詩>란 제목 아래 마지막 수만 실려 있다.<sup>7)</sup> 이는 『문선』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송대 李昉의 『太平御覽』 卷五百五十二와 郭茂倩의 『樂府詩集』 卷二十七에는 각각 <挽歌辭>와 <挽歌>라는 제목 아래 세 수 모두가 실려 있지만, 마지막 수가 첫 번째 수로 실려 있어서 배열순서에 차이가 있다.<sup>8)</sup> 이런 특징들은 후대 문인들이 어떤 경로로 <의만가사>를 수용하였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전통사회 한국 문인들이 어떻게 도연명집을 접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우리는 다만 조선시대 간행되거나 혹은 통행본으로 유통된 도연명집에 대한 정보를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 김학주는 조선시대 간행 도연명 문집으로 종종 때 간행된 活字本 『陶淵明集』(중종17, 1522), 선조 연간에 간행된 활자본 『箋注靖節先生集』(선조 16, 1583: 李公煥 箋注本을 再鑄甲寅字인 庚辰字로 인출한 판본), 숙종 때 木板으로 간행한 『陶靖節集』 등을 들었다.<sup>9)</sup> 한편 황선주는 이를 좀 더 구체화시켜 도연명집 조선 刊本은 총 7종이 확인되는데, 이를 다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보면 전기가 5종, 후기가 2종이라고 설명했다.<sup>10)</sup> 황선주에 따르면 전기 판본으론 『須溪校本陶淵明詩集』(송말원

6) 열거된 책이름은 遼欽立 輯校, 『先秦漢魏晉南北朝詩』, 北京: 中華書局, 1983, 1013면에서 제시한 내용에 필자가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와 『選詩』를 추가한 것이다.

7) 徐堅, 『初學記』 上冊, 第二版, 北京: 中華書局, 2004, 362-363면.

8) 郭茂倩, 『樂府詩集』, 北京: 中華書局, 1979, 400-401면. 본래 첫 번째 수가 두 번째 수로, 두 번째 수는 마지막 수로 실려 있다.

9) 이밖에 『陶靖節集抄』(활자, 미상), 『須溪校本陶淵明詩集』(목판, 미상) 등이 간행되었다고 한다. 김학주, 『조선시대 간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2면. 중국과 일본의 『도연명집』 판본에 대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梁啓超, 『陶集考證』, 『陶淵明』,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9, 46-55면. 橋川時雄, 『陶集版本原流放』, 新鉛活字本(中國), 文字同盟社, 1931; 郭紹虞, 앞의 책, 258-326면; 袁行霽, 『宋元以來陶集校注本之考察』, 『陶淵明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7, 199-210면.

10) 황선주, 「한국본 도연명집의 서지적 연구」, 『과학과 문화』 제9권 1호, 서원대학교

초 劉辰翁 편, 목판본, 간년미상, 三卷), 『陶淵明集』(명 李夢陽 편, 목판본, 간년미상, 八卷), 『陶淵明集』(편찬자 미상, 목판본, 간년미상, 八卷 附錄一卷), 『箋注靖節先生集』(원 李公煥 箋注, 활자본 庚辰字本, 十卷 附錄一卷), 『陶靖節集』(명 何湛之 校刊, 목판본, 간년 미상, 二卷二冊) 등이, 후기 판본으로 『陶靖節集』(何湛之 校刊, 何孟春 注本, 목판본, 간년 미상, 二卷二冊), 『陶靖節集抄』(편찬자 미상, 활자본: 芸閣鑄字本, 간년 미상, 不分卷)가 있다고 한다.<sup>11)</sup> 이중 『箋注靖節先生集』이 특히 주목된다. 이 책은 과거에 송대 간본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원대의 간본이다. 편찬자인 이공환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는데, 명청대 이 책이 여러 차례 重刻되어 널리 유포되었다고 한다.<sup>12)</sup> 현재 한국에서 확인되는 간본도 많아서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sup>13)</sup> 여기에 도연명집은 아니지만, 도연명 시와 관련된 중요 문헌인 蔡正孫(1239-?)이 편찬한 『精刊補注東坡和陶詩話』의 조선 刊本이 최근 발견되어 전기 문헌으로 1종을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를 간략히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유일본일 경우 소장처를 명시한 것임)

#### 가. 조선 전기 간본

- 1) 南宋·元 劉辰翁(1232-1297), 『須溪校本陶淵明詩集』
- 2) 南宋·元 蔡正孫(1239-?), 『精刊補注 東坡和陶詩話』

---

미래창조연구원, 2012, 67-99면. 이 논문에선 8종이라 하였으나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는 도연명집이라 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 제외하였다.

- 11)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京都: 京都大學出版會, 2006; 황선주, 위의 논문.
- 12) 橋川時雄, 앞의 책, 張21-24.
- 13) 황선주, 「목판본 『箋註靖節先生集』의 서지 문제」, 『중국어문학논집』 제77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12, 591-606면; 특히 591면 각주 1번 참조. 이공환 전주본의 원래 책이름은 『箋注陶淵明集』인데, 조선 간본은 『箋注靖節先生集』이라고 되어 있다. 또 이공환의 원서에 없는 연보와 송대 도연명집의 序跋, 그리고 선조대 화가 金禔가 그린 陶淵明 초상화와 歸去來圖 들어있어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황선주, 위의 논문, 87면; 선승혜, 「『箋注靖節先生集』에 실린 金禔(1523-1593)의 陶淵明의 초상화와 귀거래도」, 『민족문화연구』 제60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387-403면.





有無界	有界	有界	有界	有界	有界	有界	有界,	有界
行字數	10行 16字, 注 雙行	8행 16大字 注 雙行 16小字	10행 20자, 注 雙行 18자	10행 20자, 注 雙行 20자	10행 20자, 注 雙行 20자	9행 18자, 注 雙行 18자	9행 18자, 注 雙行 18자	10행 20자,
四周	單邊 雙邊 과의 혼합	上 下 單邊 左 右 雙邊	雙邊	雙邊	單邊	單邊	單邊	單邊
匡郭	19.8×13.8cm (규장각본) 19.2×13.8cm (충남대본)	반곽 16.3×10.5cm (고려대 화산문고본) 15.5×10.6cm (고려대 송문고본) 17×11.2cm (황선주본)	26.2×16.8cm (고려대본) 25.8×16.4cm (장서각본) 26.2×16.8cm (규장각본) 26.3×16.8cm (봉좌문고본) 6×17cm (황선주본)	23.2×17.9cm	23×15cm (충남대본) 23×16.8cm (하버드대본) 23×15.7cm (일각본 내각본)	19.5×14.2cm	19.0×14.5cm	21.3×14.7cm (국립중앙도서관본) 21.8×13.8cm (고려대 화산문고본) 21.8×13.7cm (고려대본)
표지제	靖節先生集	和陶集대문 (고려대 송문고본) 東坡詩刊 (고려대 화산문고본) 和話補려산대문고본)	靖節先生集 (고려대본) 靖節集 (장서각본, 황선주본)	陶淵明集	陶淵明集 (남대, 각본) 陶詩 (하대본)	靖節集	陶靖節集	靖節集
권수제	須溪校淵本陶明詩集	精刊補註和話東陶詩卷 ○	箋註靖節先生集	陶淵明集	陶淵明集	陶靖節集	陶靖節集	陶靖節集抄
序	蕭統	없음	夏埴周鼎蕭統 * 陶自疆 사재 이를 털어 명을 얻고, 10여 후 嘉가 했 내 이 있음.	미상	李夢陽陽蕭統 * 이 몽은 주문을 하 가 때 과 들 된 의 밝 이 있음.	虞淳熙	張志淳 (1458-?) 陳察 (1478-?)	없음

跋	尹 楨 (1435-1505) * 尹 楨 詩 (1433-?) 에 하친 詩 藏 詩 行 함	蔡正孫	鄭 惟 吉 (1515-1588) * 鄭 惟 吉 詩 行 함	李 濟 臣 (1536-1584) * 李 濟 臣 詩 行 함	朴 祥 (1474-1530) * 朴 祥 詩 行 함	何 湛 之 * 何 湛 之 詩 行 함	何孟春	없음
간행시기	미상 * 底本의 시는 1483년 (成化 14) 임.	미상	1583년 (萬曆 11, 16)	1579년 (萬曆 7, 12)	1522년 (嘉靖 17, 17)	미상 * 南原으로 추정	미상 * 靈光으로 추정	미상 * 숙종대 (1675-1720)로 추정
간행지	晉州	미상	漢城 校書館	晉州	忠州	미상 * 南原으로 추정	미상 * 靈光으로 추정	漢城 芸閣
간행인	尹 楨, 李 時 寶	미상	선조	이재신 鄭 芝 衍 (1527-1583)	박상 孫 仲 暉 (1463-1529)	미상	미상	미상
중저본	미상 * 陶 韋 詩 行 함	精 註 補 坡 陶 詩 和 話	이 公  환	미상	이 夢  양  판 찬 本 * 夢  양  판 찬 本 中 國 有 現 存 本	미상	미상 * 何 湛 之 校 刊 本 推 定 本	미상

	으로 주 정됨.				본 조 이 일 이 임	로 본 은 것 보 은 선 한 로	로 본 은 것 보 은 선 한 로	부 하 주 로 으 로 정 됨.	
編次	靖節先生集序(蕭統) 須溪校陶淵明詩集目錄卷上卷中卷下 新刊靖節先生詩集	精刊補 註東陶 坡詩 和總目 卷之一 卷之二 卷之三 卷之四 卷之五 卷之六 卷之七 卷之八 卷之九 卷之十 卷之一 卷之二 卷之三	靖節先生集序(夏埴, 周鼎) 補註靖節先生集總論箋註靖節先生集目錄卷上卷中卷下 新刊靖節先生詩集	陶淵明集卷之六卷之七卷之八) 陶淵明集附錄新刊靖節先生集跋(尹哲) 重刊跋(李濟臣) 刊記	刻陶淵明集序(李夢陽) 陶淵明集序(蕭統) 陶淵明集卷之一卷之二卷之三卷之四卷之五卷之六卷之七卷之八 附錄新刊靖節先生集跋(朴祥)	陶淵明集序(蕭統) 靖節先生像歸去來圖 刻陶韋詩引(虞淳熙), 陶韋合刻跋(何湛之) 陶靖節集卷之二附錄	陶靖節集目錄(何元父) 何燕泉註陶靖節集序(張志淳, 陳察) 靖節先生像歸去來圖卷之一卷之二附錄跋(何孟春)	陶靖節集抄目錄詩言	
간행위	연대 명한 도에 선호	미상	선조대 조문도 에이 는 전 절 집 행	조대 문도 에이 는 전 절 집 행	『본명 에불 이 간 이 정 이 자 구 어 지 로 함』	『교연 계도 수 본 명 에 불 이 간 이 정 이 자 구 어 지 로 함』	미상	미상	숙교 서 문 집 행 함 행 으 리 짐
특기사항	제로 중 로 되 어 나, 대 를 이 자 있 는 심 편 이 나, 공 의 적 목 淵 明 集		이 본 반 체 『箋 註 集』	공 의 적 목 淵 明 集	이 본 반 체 『箋 註 集』	양 문 서 1513 쓰 고 의 에 첨 상 이 의 이 년 여 박	정 생 귀 도 록 됨.	정 생 귀 도 록 됨. * 황 선 주	2권 도 『집 위 서 제』



이상에서 제시된 전후기 판본 중엔 『箋注靖節先生集』이 특히 주목되는데 한국에서 현재 확인되는 소장 종수만도 10종에 이를 만큼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sup>16)</sup> 또 도연명의 문집은 아니지만, 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의 영향력도 확인된다. 이 책의 저자인 蘇軾의 『東坡和陶詩』는 명대 『陶靖節集』 판본에도 부록으로 수록된 예가 있어서 양자 간의 밀접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sup>17)</sup> 실제 한국 전통사회 문인들의 도연명에 대한 인식에도 그들이 존송했던 蘇軾(1037-1101)의 推獎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는 이공환 전주본과 다른 주석과 비평자료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도연명 문집과 변별적인 부분도 있다.

도연명의 문집 외에 이 작품이 수록된 선집으로 조선시대 문인들이 접할 수 있던 책은 『文選』, 『樂府詩集』, 『選詩』 등이 있다. 『문선』에는 <의만가사> 3수 중 세 번째 시만이 「만가사」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선시』도 원대 劉履가 『문선』에서 뽑은 시에 일부 작품을 더하고 주석을 첨가해서 만든 책인 만큼, 『문선』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수만 실려 있다. 다만, 六臣注 외에 이공환 전주본에도 수록되어 있는 趙泉山의 주석 등이 덧붙여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문선』은 신라시대 讀書三品科의 시험과목이었던 만큼 일찍부터 읽혔고, 『선시』도 조선시대 조선 간본이 전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조 문인들에게 익숙한 책이었다.<sup>18)</sup> 다만 『문선』과 『선시』에는 마지막 수만 실려 있고 『樂府詩集』은 배열순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작의 순서대로 和韻詩를 남긴 경우는 도연명의 문집 혹은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에서 보았거나 이들을 바탕으로 한 필사본을

16) 황선주, 「목판본 『箋註靖節先生集』의 서지 문제」, 『중국어문학논집』 제77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12, 591면 각주 1번 참조.

17) 郭紹虞의 『陶集考辨』에 따르면, 명대 楊時偉가 편찬한 『陶靖節集』(八卷)에도 부록으로 蘇軾의 『和陶詩』 二卷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郭紹虞, 앞의 책, 300-301면.

18) 박철상, 「白光弘 內賜本 『選詩』의 書誌의 의미」, 『選詩』(『選詩補注』·『選詩補遺』·『選詩續編』), 조선간본 영인본, 기봉 백광홍선생 기념사업회, 2004. 이 책은 白光弘 집안에 내려오는 內賜本으로 1553년 간행된 판본이다.

통해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화운시를 남긴 조선 중기 崔奇男이 『陶靖節集』에서 <의만가사>를 보았다고 한 것을 감안하면,<sup>19)</sup> 도연명 문집으로부터 이 시를 읽고 수용한 예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柳馨遠(1622-1673) 같은 인물이 善本을 구하기 어려워 스스로 校正하고 繕寫해서 직접 『陶靖節集』을 엮은 것을 보면, 조선 후기의 경우 도연명 문집의 간행이나 유통 상황이 반드시 양호했던 것만은 아닌 듯하다.<sup>20)</sup>

흥미로운 점은 現傳本을 기준으로 할 때 조선 후기 간행된 도연명 문집이 오히려 전기나 중기보다 주석 등이 삭제된 간략본이란 사실이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통행본으로 지금도 많은 책이 전하는 刊記 없는 목판본들은 대체로 明 何孟春 注本을 底本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何孟春은 호가 燕泉으로 李東陽의 문도로 茶陵詩派의 일원이었던 인물이다. 그가 편찬한 책은 명대 도연명 주석본 중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데, 막상 조선 후기 간행본을 열어 보면 明 何湛之 校刊이라고 되어 있고 주석도 거의 없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 책은 사실 明 何湛之가 明 何孟春 注本을 저본으로 편차를 바꾸고 주석을 대부분 덜어낸 것이기 때문이다.<sup>21)</sup> 유형원이 스스로 『도정절집』을 엮으면서 저본에 대한 교정만이 아니라 總論을 다시 선별하고 자신의 按說까지 추가한 것엔 후기 통행본의 소략한 내용에 대한 불만도 일부 작용하였으리라 보인다.<sup>22)</sup>

아래에선 조선시대 간본이 확인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해당 책에 수록

19) 崔奇男, 『龜谷詩稿』 卷一上, <和陶靖節輓詩三章> 并序, 한국문집총간 속집 22, 민족문화추진회, 2006, 315면. “吾年六十三, 數年前左耳聾, 不辨聲音. 今年右臂病, 不能屈伸, 連砭灸, 兼且服藥, 不差快, 氣力漸覺衰敗, 生老病死之語, 信乎不誣. 呻吟中, 偶閱靖節集, 看到自挽, 悵然感懷, 命筆步其韻以自遣云.”

20) 박철상, 「磻溪 柳馨遠이 엮은 『陶靖節集』과 그의 逸民意識」, 『한국실학연구』 제 11집, 한국실학학회, 2006, 217-237면.

21) 이현우, 「朝鮮 後期の 無刊記 刊本 <陶靖節集>에 관한 고찰」, 『중국어문논총』 제49집, 중국어문연구회, 153-180면.

22) 박철상은 유형원의 『도정절집』 편찬의도를 주로 逸民意識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유형원이 굳이 『箋注靖節先生集』의 체례를 따르고 당시의 통행본을 따르지 않은 점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된 도연명 <擬挽歌辭三首>의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만, 개인 소장본으로 열람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부분이 결락되어 전하지 않는 경우는 부득이 제외하였다.

■ 표2 <擬挽歌辭三首> 수록 부분과 내용 비교

	조선 전기 판본				조선 후기 판본	
	『須溪校本陶淵明詩集』	『精刊補注東坡和陶詩話』	『箋註靖節先生集』	明李夢陽本『陶淵明集』	明何湛之(何孟春)本『陶靖節集』	『陶靖節集抄』
수권	卷下	卷十三	卷四	卷四	卷一	詩五言
목차	擬挽歌辭三首	擬挽歌三首	擬挽歌辭三首	미상	挽歌辭三首	擬挽歌辭三首
본문	擬挽歌辭三首	擬挽歌三首	擬挽歌辭三首	擬挽歌辭三首	擬挽歌辭三首	擬挽歌辭三首
其一	有生必有死， 早終非命促。 昨暮同爲人， 今旦在鬼錄。 魂氣散何之， 枯形寄空木。 嬌兒索父啼， 良友撫我哭。 得失不復知， 是非安能覺。 千秋萬歲後， 誰知榮與辱。 但恨在世時， 飲酒不得足。	有生必有死， 早終非命促。 昨暮同爲人， 今旦在鬼錄。 魂氣散何之， 枯形寄空木。 嬌兒索父啼， 良友撫我哭。 得失不復知， 是非安能覺。 千秋萬歲後， 誰知榮與辱。 但恨在世時， 飲酒不得足。	有生必有死， 早終非命促。 昨暮同爲人， 今旦在鬼錄。 魂氣散何之， 枯形寄空木。 嬌兒索父啼， 良友撫我哭。 得失不復知， 是非安能覺。 千秋萬歲後， 誰知榮與辱。 但恨在世時， 飲酒不得足。	有生必有死， 早終非命促。 昨暮同爲人， 今旦在鬼錄。 魂氣散何之， 枯形寄空木。 嬌兒索父啼， 良友撫我哭。 得失不復知， 是非安能覺。 千秋萬歲後， 誰知榮與辱。 但恨在世時， 飲酒不得足。	有生必有死， 早終非命促。 昨暮同爲人， 今旦在鬼錄。 魂氣散何之， 枯形寄空木。 嬌兒索父啼， 良友撫我哭。 得失不復知， 是非安能覺。 千秋萬歲後， 誰知榮與辱。 但恨在世時， 飲酒不得足。	有生必有死， 早終非命促。 昨暮同爲人， 今旦在鬼錄。 魂氣散何之， 枯形寄空木。 嬌兒索父啼， 良友撫我哭。 得失不復知， 是非安能覺。 千秋萬歲後， 誰知榮與辱。 但恨在世時， 飲酒不得足。

其二	<p>在昔無酒飲， 今但湛空觴。 春醪生浮蟻， 何時更能嘗。 肴案盈我前， 親舊哭我傍。 欲語口無音， 欲視眼無光。 昔在高堂寢， 今宿荒草鄉。 (一本有荒草 無人眠，極 視正茫茫之 句。) 一朝出門去， 歸來良未央。</p>	<p>在昔無酒飲， 今但湛空觴。 春醪生浮蟻， 何時更能嘗。 肴案盈我前， 親舊哭我傍。 欲語口無音， 欲視眼無光。 昔在高堂寢， 今宿荒草鄉。 一朝出門去， 歸來良未央。 (按一本今宿 荒草鄉下， 更有二句云， 荒草無人眠， 極視正茫茫， 極視又作直 視。)</p>	<p>在昔無酒飲， 今但湛空觴。 春醪生浮蟻， 何時更能嘗。 殺案盈我前， 親舊哭我傍。 欲語口無音， 欲視眼無光。 昔在高堂寢， 今宿荒草鄉。 (一本有荒草 無人眠，極 視正茫茫二 句。) 一朝出門去， 歸來夜未央。</p>	<p>在昔無酒飲， 今但湛空觴。 春醪生浮蟻， 何時更能嘗。 殺案盈我前， 親舊哭我傍。 欲語口無音， 欲視眼無光。 昔在高堂寢， 今宿荒草鄉。 (一本有荒草 無人眠，極 視正茫茫二 句。) 一朝出門去， 歸來夜未央。</p>	<p>在昔無酒飲， 今但湛空觴。 春醪生浮蟻， 何時更能嘗。 殺案盈我前， 親舊哭我傍。 欲語口無音， 欲視眼無光。 昔在高堂寢， 今宿荒草鄉。 一朝出門去， 歸來夜未央。</p>	<p>在昔無酒飲， 今但湛空觴。 春醪生浮蟻， 何時更能嘗。 殺案盈我前， 親舊哭我傍。 欲語口無音， 欲視眼無光。 昔在高堂寢， 今宿荒草鄉。 一朝出門去， 歸來夜未央。</p>
其三	<p>荒草何茫茫， 白楊亦蕭蕭。 嚴霜九月中， 送我出遠郊。 四面無人居， 高墳正崔嵬。 馬爲仰天鳴， 風爲自蕭條。 (一曰，鳥爲 動哀鳴，林 爲結風飈。) 幽室一已閉， 千年不復朝。 千年不復朝， 賢達無奈何。 向來相送人， 各自還其家。 親戚或餘悲， 他人亦已歌。 死去何所道， 託本同山阿。</p>	<p>荒草何茫茫， 白楊亦蕭蕭。 嚴霜九月中， 送我出遠郊。 四面無人居， 高墳正崔嵬。 馬爲仰天鳴， 風爲自蕭條。 (一作鳥爲動 哀鳴，林爲 結風飈。) 幽室一已閉， 千年不復朝。 千年不復朝， 賢達無奈何。 向來相送人， 各自還其家。 親戚或餘悲， 他人亦已歌。 死去何所道， 託體同山阿。</p>	<p>荒草何茫茫。 白楊亦蕭蕭。 嚴霜九月中， 送我出遠郊。 四面無人居， 高墳正崔嵬。 馬爲仰天鳴， 風爲自蕭條。 幽室一已閉， 千年不復朝。 千季不復朝， 賢達無奈何。 向來相送人， 各自還其家。 親戚或餘悲， 他人亦已歌。 死去何所道， 託體同山阿。</p>	<p>荒草何茫茫， 白楊亦蕭蕭。 嚴霜九月中， 送我出遠郊。 四面無人居， 高墳正崔嵬。 馬爲仰天鳴， 風爲自蕭條。 幽室一已閉， 千年不復朝。 千季不復朝， 賢達無奈何。 向來相送人， 各自還其家。 親戚或餘悲， 他人亦已歌。 死去何所道， 託體同山阿。</p>	<p>荒草何茫茫， 白楊亦蕭蕭。 嚴霜九月中， 送我出遠郊。 四面無人居， 高墳正崔嵬。 馬爲仰天鳴， 風爲自蕭條。 幽室一已閉， 千年不復朝。 千季不復朝， 賢達無奈何。 向來相送人， 各自還其家。 親戚或餘悲， 他人亦已歌。 死去何所道， 託體同山阿。</p>	<p>荒草何茫茫， 白楊亦蕭蕭。 嚴霜九月中， 送我出遠郊。 四面無人居， 高墳正崔嵬。 馬爲仰天鳴， 風爲自蕭條。 幽室一已閉， 千年不復朝。 千季不復朝， 賢達無奈何。 向來相送人， 各自還其家。 親戚或餘悲， 他人亦已歌。 死去何所道， 託體同山阿。</p>

					山阿.	
주석부	교감주만 있음	교감주 외에 도 다음 내 용이 수록되 어 있음 年譜-胡仔의 시화-秦觀의 <自作挽 詞>-胡仔의 시화	교감주 외에 도 다음 내 용이 수록되 어 있음 祁寬-趙泉山 -이공환의 按說	교감주만 있음	주석 없음	주석 없음

이상을 통해 볼 때 각 간본에 수록된 <擬挽歌辭三首>의 내용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간본의 성격과 특징은 조선시대 자만시 창작에 직간접으로 미친 영향도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록된 내용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擬挽歌辭三首>는 제목 중 ‘擬’자와 ‘三首’란 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문선』에선 <挽歌詩>라고만 제목을 달고 있어서, 그 영향을 받은 책들 역시 동일한 제목을 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연명 문집에선 <擬挽歌辭三首>란 제목 아래 시가 수록되어 있다.<sup>23)</sup> 다만 도연명 문집 일부 판본의 목차엔 <挽歌辭>로 본문엔 <擬挽歌辭>란 제목으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발견된다. 조선시대 간본을 기준으로 본다면 주로 조선 후기 통행본으로 많이 전하는 명대 何湛之가 校刊한 二卷二冊 분량의 『陶靖節集』이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명대 何孟春 注本을 底本으로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편차에도 큰 차이가 있고 주석도 모두 생략되어 있다. 이 책의 목차엔 「

23) 제목 중 ‘擬’자에 대해선 청대 陶澍처럼 『문선』의 편차를 고려하여 후대의 편찬자가 제목을 잘못 붙인 것으로 보는 시각과 현대학자 袁行霈처럼 전대 繆襲과 陸機의 만가시를 모의해서 지었다는 의미로 보는 시각이 있다. 漢魏六朝시기 문학 연구 성과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 악부시 제목에 많이 보이는 ‘代’자도 ‘擬’자의 의미라고 하고, ‘擬代’가 ‘擬作’·‘代言’ 방식으로써 완성한 詩賦 작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漢魏六朝시기에 ‘贈答’과 함께 문인들 창작의 大宗을 이룬다고 한다. 이런 연구결과는 제목의 ‘擬’자가 본뜬다는 의미와 함께 당대 보편적 시 쓰기 방식의 표지임을 보여 준다. 王志清, 『晉宋樂府詩研究』, 保定: 河北大學出版社, 2007, 291면; 梅家玲, 『漢魏六朝文學新論—擬代與贈答篇』,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1-7면.

挽歌辭三首」라고 되어 있지만 정작 본문엔 <擬挽歌辭三首>라고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sup>24)</sup> 이런 혼란은 구한말의 학자 田愚(1841-1922)가 이 시의 제목을 <擬自挽歌辭三首>라고 혼동한 것이나, 비슷한 시기 黃炳中(1871-1935)이 <擬自挽>이란 시제로 <의만가사>를 엄두에 둔 자만시를 쓴 것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sup>25)</sup>

이 작품의 창작시기에 관해서는 원대 李公煥의 箋注本에서 인용한 趙泉山과 祁寬의 설, 그리고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에 수록된 年譜 등에서 언급하고 있다. 趙泉山은 시의 내용이 도연명 <自祭文>의 “(음력)9월律中無射”의 달과 일치하므로 죽을 무렵에 지어진 작품이라고 하였고,<sup>26)</sup> 祁寬은 문집 편차를 고려할 때 <의만가사삼수>에서 절필했으니 죽을 무렵에 지어졌을 것이라고 했다.<sup>27)</sup> 『정간보주동과화도시화』에 수록된 도연명 연보에서는 한 걸음 나아가 宋文帝元嘉4년丁卯(427년) 도연명 나이 63세 되던 해 9월에 이 시와 「自題文」을 짓고 같은 해 죽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8)</sup> 그러나 이 밖의 조선시대 간본에는 별도의 주석이 없어서 정확한

24) 조선 후기 柳馨遠이 개인적으로 엮은 『陶靖節集』 卷四에도 목차에는 제목이 <挽歌辭三首>라고 되어 있지만, 본문에는 <擬挽歌辭三首>라고 표기되어 있다.

25) 田愚, <和陶集擬自挽歌辭 三首>, 『艮齋集』 前編續 卷六, 한국문집총간 333, 민족문화추진회, 2004, 568면; 黃炳中, 『鼓巖集』 卷一, <擬自挽(壬戌十二月)>, 경상대학교 문헌각 소장본.

26) “趙泉山曰, ‘嚴霜九月中, 送我出遠郊.’ 與<自祭文>‘律中無射之月’相符, 知挽辭乃將逝之夕作.”

27) “祁寬曰, 昔人自作祭文挽詩者, 多矣. 或寓意騁辭, 成於暇日, 寬攷次靖節詩文, 乃絕筆於祭挽三篇, 蓋出於屬續之際者. 辭情俱達, 尤爲精麗, 其於晝夜之道, 了然如此. 古之聖賢, 唯孔子曾子能之, 見於曳杖之歌易簣之言. 嗟哉, 斯人沒七百年, 未聞有稱贊及此者, 因表而出之, 附于卷末.” 그런데 이 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趙泉山의 주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청대 闕名의 『靜居緒言』에선 조천산 등의 주석이 도연명의 시의 의미를 지나치게 어떤 일과 연결시켜 건강부회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闕名, 『靜居緒言』, 郭紹虞 編選, 『清詩話 續編』 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1633면. “陶公之心淵如, 其詩穆如, 寄意之微, 有神無跡. 趙泉山·張九成輩, 必謂某篇指某事, 何其謬哉!”

28) “宋文帝元嘉四年, 公自題. 丁卯時, 公年六十三, 九月作<自祭文>及<擬挽歌辭>, 是歲公卒.” 도연명의 享年에 대해서는 63세설 외에도 56세설(梁啓超), 52세설(遂欽立)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최소 50세 이후에 세상을 뜬 도연명이 자신의 죽음을 ‘早終’(첫 번째 수)이라고 언급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袁行霽는

창작시기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sup>29)</sup> 특히 조선 후기 간본에서 관련 주석을 찾아 볼 수 없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조선 후기 자만시 창작의 특정 경향과 연계된 문제일 수 있다.

조선시대 자만시에 영향을 미친 내용을 중심으로 작품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30)</sup> <의만가사> 첫 번째 수는 죽음부터 入棺까지, 두 번째 수는 상례의식과 운구를, 세 번째 수의 전반은 묘지에서의 매장, 換韻한 후반 부분은 매장 이후의 일 등 장례의식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는 ‘酒’로 이어지고, 두 번째 수와 세 번째 수는 ‘荒草’로 이어지며, 세 번째 수의 전반과 후반은 “천년토록 다시 아침이 오지 않는다 千年不復朝”라는 구절이 반복되며 이어진다. 어휘와 시구의 연결이 상장례 과정과 매끄럽게 조응된다. 첫 번째 수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된다.

득실을 다시 알지 못하리니,

---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첫 번째 수의 “嬌兒索父啼”라는 구절을 단서로 이 작품이 46세 전후에 지어진 작품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袁行霈 箋注, 『陶淵明集箋注』, 北京: 中華書局, 2003, 421-422면.

29) 이공환본의 영향력 때문인지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중국 문인들 중에도 <의만가사>를 임종 무렵 작품이라고 본 경우가 많다. 이런 시각은 현대학자들에게도 이어져 대만 王叔岷(1914-2008, 본명은 邦濬)은 임종 무렵에 지은 작품도 挽歌·挽歌詩라고 일컫는다고 설명하고, 그 예로 孔融과 歐陽建의 臨終詩를 들기도 했다. 王叔岷 撰, 『陶淵明詩箋證稿』, 北京: 中華書局, 2007, 496-504면. 하지만, 이런 시각은 자만시와 임종시의 근본적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임종시나 절명사가 자신의 실제 죽음을 예비하는 성격이 두드러지는데 반하여, 자만시는 반드시 실제 죽음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자만시 작품들이 임종 이전에 지어진 것도 이 점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자만시가 갖는 시적 화자의 특수성, 곧 죽은 내가 생전의 삶을 돌이켜 보는 방식이나, 상장례의 假設 등은 유연적 성격의 작품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다.

30) 이 항목의 서술 중 일부 내용은 필자의 전고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줄고, 「한국 한시에서의 陶淵明 <擬挽歌辭>의 수용과 변주」, 『한국한시연구』 21, 한국한시학회, 2013, 294-301면. 하지만, 그 뒤 관련 문헌을 폭넓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 후속 논의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일부 중복된 논의를 펼치는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한다. 줄고를 참고하실 경우 이 글을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옳고 그름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천년만년 지난 후에,

누가 영화과 치욕을 알겠는가.

단지 한스럽기론 세상에 있을 때,

만족스럽게 술 마시지 못한 일이네.

得失不復知, 是非安能覺. 千秋萬歲後, 誰知榮與辱. 但恨在世時, 飲酒不得足.<sup>31)</sup>

마지막 구절 “飲酒不得足”은 南宋 曾集이 편찬한 『陶淵明集』엔 “飲酒常不足”으로,<sup>32)</sup> 『樂府詩集』엔 “飲酒恒不足”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의미는 동일하다. 이 구절은 특히 우리 문인들에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듯하다. 자만시 외에도 “飲酒不得足”이란 표현을 활용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기 때문이다. 또 도연명의 <의만가사>를 언급할 때 이 구절을 함께 드는 경우도 많다.<sup>33)</sup> 다만, 이 구절은 술에 대한 자신의 기호를 드러내며 죽음을 달관하는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北宋 葉夢得이 『石林詩話』에서 말한 것처럼 ‘술’이란 상징물을 통해 현실에 대한 불만을 던지시 드러내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sup>34)</sup> 조선시대 자만시에서도 그런 측면이 충분히 활용되

31) 이하에서 인용한 도연명 <의만가사>의 원문은 특별한 설명이 없을 경우 원대 李公煥의 箋注本을 대본으로 하고, 기타 조선 간본은 물론 현대 교주본 및 選集들을 폭넓게 참고한 것이다. 이공환본을 대본으로 삼은 것은 조선시대 간본 중 시기적으로 앞서 있으며, 다른 간본에 미친 영향도 비교적 크기 때문이다. 이밖에 참조한 현대 교주본 및 選集들은 다음과 같다. 袁行霈 箋注, 『陶淵明集箋注』, 北京: 中華書局, 2003, 420-427면; 龔斌 校箋, 『陶淵明集校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355-362면; 王叔岷 撰, 앞의 책, 496-504면; 蕭統 編, 『文選』, 李善 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1332-1337면; 郭茂倩, 『樂府詩集』, 北京: 中華書局, 1979, 400-401면; 方祖燊, 『陶潛詩箋註校證論評』, 臺北: 蘭臺書局, 1997, 43-46면; 逢欽立 輯校, 『先秦漢魏晉南北朝詩』, 北京: 中華書局, 1983, 1012-1013면; 楊勇 校箋, 『陶淵明集校箋』, 臺北: 正文書局, 1985, 249-252면.

32) 다만 曾集本을 조선시대 문인들이 직접 보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33) 참고, 앞의 논문, 302-304면. “飲酒不得足” 만큼은 아니지만 첫 번째 수 두 번째 구절 “일찍 죽는다 해서 명이 짧다 못하리 早終非命促”도 人口에 膾炙되었던 듯하다. 李衡祥의 만시에 이 구절을 그대로 가져다 쓴 예가 보인다. 李衡祥, 『瓶窩集』 卷一, <金大諫(聲久)輓>, 한국문집총간 164, 민족문화추진회, 1996, 209면. “淵明昔自輓, 早終非命促.”

34) 胡仔, 『苕溪漁隱叢話』 前集 卷四, 「五柳先生 下」, 吳文治 主編, 『宋詩話全編』 肆,

어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두 번째 수에서는 삶과 죽음을 극적으로 대비시킨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다.

옛날에는 마실 술 없더니,  
이젠 다만 비었던 술잔이 채워지는구나.  
...(중략)...

예전엔 화려한 집에서 잤는데,  
이젠 거친 풀 우거진 곳에서 자게 되었구나.  
하루아침에 문을 나서 떠나가면,  
돌아가려 하여도 밤은 끝이 없구나.

在昔無酒飲, 今但湛空觴. …(중략)… 昔在高堂寢, 今宿荒草鄉. 一朝出門去, 歸來夜未央.

『須溪校本陶淵明詩集』,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 『箋注靖節先生集』, 明李夢陽本『陶淵明集』엔 “昔在高堂寢, 今宿荒草鄉.”과 “一朝出門去, 歸來夜未央.” 사이에 “荒草無人眠, 極視正茫茫.”이란 두 구절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校勘注가 부기되어 있다.<sup>35)</sup> 다만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의 교감주엔 ‘極視’가 ‘正視’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또 마지막 구절 “歸來夜未央”이 『樂府詩集』엔 “歸家良未央”으로, 須溪校本『陶淵明詩集』과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엔 “歸來良未央”으로 되어 있어서 “歸來夜未央”이라 했을 때와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sup>36)</sup> 한편, 이런 교감주들은 조선 후기 판본에선 자취를 감춘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조선 후기 도연명집 판본들이 善本이라 하기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南京: 鳳凰出版社, 1998, 3542면, “『石林詩話』云, ‘晉人多言飲酒, 有至沈醉者, 此未必意真在於酒, 蓋方時艱難, 人各懼禍, 惟託於醉, 可以粗遠世故.’” 胡仔가 「五柳先生」조에서 이 시화를 인용하는 것을 보면 도연명 시에서 술이 의미하는 바 역시 그러한을 짐작할 수 있다.

35) 이 교감 내용은 曾集本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36) 袁行霈는 “一朝出門去, 歸來夜未央.”구의 의미를 하루아침에 문을 나서 거친 풀 우거진 곳에서 자는 것이니 참으로 밤 속으로 영원히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袁行霈 箋注, 앞의 책 6번 주석, 424면.

이렇게 삶과 죽음을 극적으로 대비시킨 표현들은 이미 魏晉시기 繆習과 陸機의 <挽歌詩>에서 발견된다. “예전엔 화려한 집에서 잤는데, 이젠 거친 풀 우거진 곳에서 자게 되었구나.昔在高堂寢, 今宿荒草鄉.”는 목습 <挽歌>의 “아침에 화려한 집 위를 떠나, 저녁엔 황천 아래에 묵는구나.朝發高堂上, 暮宿黃泉下.”나 육기 <挽歌三首> 두 번째 수의 “옛날엔 사민(士農工商)의 집에서 살았건만, 이젠 수많은 귀신 사는 곳에 의탁하게 되었구나.昔居四民宅, 今托萬鬼鄉.”와도 유사한 意境을 담고 있다. 위 두 시와 도연명의 자만시 중 세 번째 수는 『文選』 卷二十八에 함께 실려 있기도 하다. 반드시 <의만가사>로만 한정할 수는 없지만, 삶과 죽음의 격차를 드러낸 이런 표현들은 조선시대 자만시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수에서 제시된 삶과 죽음의 격차는 마지막 수에서 매장의 모습과 함께 죽음을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로 받아들이는 초탈적 의식으로 마무리된다.

황량한 풀 어찌 저리 아득한가,  
백양나무도 스산하기만 하네.<sup>37)</sup>  
된서리 내린 9월에,  
나를 묻으러 멀리 교외로 나왔구나.  
사방에는 사람 사는 집도 없고,  
높다란 무덤들만 우뚝우뚝 솟았네.  
말은 하늘 우러러 울부짖고,  
바람은 절로 소슬하다오.  
무덤구덩이 한번 닫히게 되면,  
천 년이 지나도 다시는 아침을 맞지 못하리.  
천 년이 지나도 다시 아침을 맞지 못하리니,  
현달한 이라도 어쩔 수 없다오.  
...(중략)...

37) 이 두 구절은 “거친 풀 어찌 그리 무성한가, 백양나무도 바람에 우수수 소리 낸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죽고 나면 무슨 할 말 있나,<sup>38)</sup>  
 몸을 맡겨 산언덕과 함께할 뿐.

荒草何茫茫, 白楊亦蕭蕭. 嚴霜九月中, 送我出遠郊.<sup>39)</sup> 四面無人居, 高墳正  
 嶮嶮. 馬爲仰天鳴, 風爲自蕭條.<sup>40)</sup> 幽室一已閉, 千年不復朝. 千年不復朝, 賢達  
 無奈何. …(중략)… 死去何所道, 託體同山阿.”

『樂府詩集』에선 “馬爲仰天鳴, 風爲自蕭條.”가 “鳥爲動哀鳴, 林風自蕭  
 條.”로 되어 있고, 『須溪校本陶淵明詩集』과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에도  
 이 구절이 “鳥爲動哀鳴, 林爲結風飈.”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교감주  
 가 달려 있다. 또한 『須溪校本陶淵明詩集』에는 마지막 구절 “託體同山阿”  
 가 “託本同出阿”라고 되어 있다.<sup>41)</sup>

처음 두 구절 “황량한 풀 어찌 저리 아득한가, 백양나무도 스산하기만  
 하네 荒草何茫茫, 白楊亦蕭蕭.”, 두 번 반복되는 “천 년이 지나도 다시는  
 아침을 맞지 못하리 千年不復朝”와 마지막 구절 “몸을 맡겨 산언덕과 함  
 께할 뿐 託體同山阿” 같은 표현은 후대 작품들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  
 다. 특히 “託體同山阿”란 표현은 자만시 외의 조선시대 한시에서도 활용  
 된 사례가 발견된다.<sup>42)</sup>

이상을 통해 볼 때 조선시대 간본 및 통행본은 전기와 후기의 상황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 거칠게 말해서 전기에 비해 후기의 간본이 善本이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중국으로부터 직접 들어온 책까지 포  
 함한다면 청대 藏薰이 評閱한 『陶靖節集』 같이 주석과 眉批를 갖추고 있

38) 대만학자 王叔岷은 이 구절의 ‘道’를 ‘從’의 의미로 보아, “죽고 나서 무엇을 따르  
 라”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王叔岷 撰, 앞의 책, 504면.

39) “送我出遠郊”가 “送我來遠郊”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40) “馬爲仰天鳴, 風爲自蕭條.”가 “鳥爲動哀鳴, 林爲結風飈.”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  
 다.

41) 필자가 검토한 책은 간년 미상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목판본 須溪校本 『陶  
 淵明詩集』이다. 소장기호 一叢古895.1108-D65s. 그런데 이 구절의 차이는 단순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본은 ‘體(體)’자의 ‘人’ 변이 떨어져 나간 듯하고, 出은 ‘山’  
 자의 誤刻인 듯하다.

42) 李海昌, 『松坡集』 卷七, <重逢歌>, 한국문집총간 속집 2, 고전번역원, 2005, 292  
 면. “存者相看各憔悴, 化者託體同山阿.”

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영향력이 조선시대 刊本보다 크다고 보긴 어렵다.<sup>43)</sup> 당대 통행본에 대한 불만으로 스스로 『陶靖節集』을 편찬한 柳馨遠의 사례 역시 후기 간본의 한계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유형원이 편찬한 『陶靖節集』의 <의만가사삼수> 부분에는 후기 간본들과 달리 李公煥의 箋注本에 수록되어 있던 祁寬과 趙泉山의 주석을 다시 수록하고 있기도 하다.<sup>44)</sup> 결국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의만가사삼수>에 대한 정보와 이해 수준은 전기에 비해 후기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 3. 조선시대 <擬挽歌辭三首> 수용 경로와 자만시 창작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시대 내에서도 전기와 후기 간본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후기 간본의 문헌적 한계는 유형원의 불만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제 우리는 도연명의 <의만가사>가 어떻게 조선시대 문인들에게 수용되었으며 또 그것이 자만시 창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따져보기로 한다. 이는 물론 현 단계에서 완전히 해명하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文選』의 경우를 통해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의만가사>가 알려졌으며, 도연명의 문집이 조선시대 여러 차례 간행되고 이 작품이 실려 있는 각종 選集 및 類書들도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수용 경로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음에선 필자가 현재까지 수집한 조선시대 자만시 및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그 수용 맥락을 짚어보기로 한다.<sup>45)</sup>

최초의 본격적 자만시인 南孝溫(1454-1492)의 <自挽四章, 上估畢齋先

43) 이 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도 소장되어 있다. 4卷2冊, 청구기호 奎中3892.

44) 柳馨遠, 『陶靖節集』 卷四, <擬挽歌辭三首>, 修綆室 소장본. 귀한 소장본을 열람하도록 厚意를 베풀어주신 박철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45) 이하의 내용은 줄고, 「陶淵明의 <擬挽歌辭三首>와 조선시대 자만시-韓中 자만시 비교 (1)-」, 『대동한문학회』 제41집, 대동한문학회, 2014.12, 463-472면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生>은 시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스승인 估畢齋 金宗直을 독자로 상정한 독특한 자만시이다.<sup>46)</sup> 본래 남효온이 김종직에게 올리는 편지의 別章에 실려 있던 이 작품을 읽고 김종직이 보낸 답서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내용은 다음 부분이다.

우선 이 만사를 보니 족히 가)도연명·秦少游(秦觀)를 이어받았다 할 만하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또 족히 우리 추강의 수명이 한량없음을 알 수 있구나. 나)저 두 사람의 노래는 모두 목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지은 것이기 때문에, 다)도연명은 세상을 달관하고 진소유는 인생을 슬피하는 것 등으로 그치고, 다시 여운을 남긴 맛이 없는데, 우리 추강은 세상의 여섯 가지 액을 슬피한 것 같지만 마침내는, “서른하고 여섯 해 동안, 언제나 세상의 시기를 받았다” 하였으니, 그 자찬이 매우 깊다 하겠고, 또 못내 이 세상을 잊지 못하는 생각이 있으니, 이를 어찌 갑자기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사람의 소리라 하겠나?<sup>47)</sup>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효온과 김종직은 자만시란 시적 주제에 대한 이해 수준이 창작과 비평 모두에서 높은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종직은 자만시의 전통이 도연명으로부터 시작되어 송대 秦觀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가], 창작시기는 임종무렵이며[나], 두 작품의 특성을 각각 ‘曠達’과 ‘哀楚’라고 대비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다] 단순히 남효온의 시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기엔 자만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매우 높다. 먼저 그 이해의 경로를 추정해 보기로 하자.

도연명의 작품이 임종 무렵에 지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말일

46) 南孝溫, 『秋江集』 卷一, 한국문집총간 16, 민족문화추진회, 1990, 30면. “端肅謹達冬官相公估畢金先生座下. …(中略)…僑居, 乃作挽歌四篇, 付之豚犬, 更繕寫呈先生座下, 極知鄙人貪戀世味, 不得透利名關, 安能更希古人齊死生了物我之遺意耶. 但病中精神喪耗, 志氣摧挫, 荒詞必不文理接屬, 幸加斤正是望.”

47) 金宗直, 『估畢齋集』 文集 卷一, <答南秋江書>, 한국문집총간 12, 민족문화추진회, 1990, 404면. “姑玩其詞, 足以嗣淵明·少游之遺響矣. 然因是, 又足以知吾秋江年齡之不窮也. 彼二人之歌, 皆臨絕之作, 故陶則曠達, 秦則哀楚而止耳, 更無紆餘不盡之味, 吾秋江, 則似傷其在世六厄, 而竟云, ‘三十六年間, 長被物情猜.’ 其自讚也, 深矣, 且有拳拳不忘斯世之慮焉, 是豈濫先朝露之人哉?”

까? 이는 원대 이공환이 集錄한 『箋注陶淵明集』(조선 간본의 제목은 『箋註陶靖節集』)의 주석에서 언급된 바 있는 내용이다. 인용된 祁寬과 趙泉山의 주석에서 이 작품이 임종 무렵의 작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48)</sup> 하지만, 김종직의 이해는 그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 단순히 <의만가사삼수>의 창작시기 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을 송대 인물인 秦觀의 자만시와 견주고, 두 작품의 미적 특성을 비교한 것은 이공환의 전주본에선 찾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렇다면 김종직은 어디에서 이런 정보를 얻었을까? 그 해답은 『精刊補注東坡和陶詩話』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책은 송대 蔡正孫이 『東坡和陶詩』에 補注해서 편찬하였으며 조선시대에도 간행된 바 있다.

『精刊補注東坡和陶詩話』 卷十三에는 소식이 화운하지 않은 도연명의 시 21수를 수록하고 있는데, <의만가사>도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이 시 아래에 年譜—胡仔의 詩話 중 <의만가사>와 秦觀의 <自作挽詞>에 관한 評—秦觀의 <自作挽詞>—胡仔의 詩話 중 蘇軾이 <의만가사>와 <自作挽詞>를 비교 평가한 것에 대한 비판 순으로 주석이 부기되어 있다. 그 내용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年譜

年譜云, 宋文帝元嘉四年, 公自題, 丁卯時, 公年六十三, 九月作自祭文及擬挽歌辭, 是歲公卒. 祭文云, “律中無射.” 挽歌云, “嚴霜九月中, 送我出遠郊.” 豈公於此時, 臥病自覺不可支. 遂作文與歌, 旋即逝歟.

48) 주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祁寬曰, 昔人自作祭文挽詩者, 多矣. 或寓意騁辭, 成於暇日, 寬攷次靖節詩文, 乃絕筆於祭挽三篇, 蓋出於屬續之際者. 辭情俱達, 尤爲精麗, 其於晝夜之道, 了然如此. 古之聖賢, 唯孔子曾子能之, 見於曳杖之歌易簣之言. 嗟哉, 斯人沒七百年, 未聞有稱贊及此者, 因表而出之, 附于卷末. 趙泉山曰, 嚴霜九月中, 送我出遠郊. 與自祭文律中, 無射之月相符, 知挽辭乃將逝之夕作, 是以梁昭明采此辭入選, 止題曰陶淵明挽歌, 而編次本集者, 不悟, 乃題云擬挽歌辭. 曾端伯曰, 秦少游將亡, 效淵明自作哀挽. 王平甫亦云, 九月清霜送陶令, 此則挽辭, 決非擬作, 從可知矣. 又曰, 晉桓伊善挽歌, 庾晞亦喜爲挽歌, 每自搖大鈴爲唱, 使左右齊和, 袁山松遇出遊, 則好令左右作挽歌類, 皆一時名流達士習尚如此, 非如今之人例以爲悼亡之語, 而惡言之也. 按蘇劉皆不和, 豈畏死耶.”

淵明墓在柴桑里，今德化縣.

나. 胡仔의 詩話 중 도연명 <의만가사>와 秦觀의 <自作挽詞>에 관한 평  
胡荅溪云, 淵明自作擬挽歌辭, 凡三章, 秦太虛亦效之, 余謂淵明之辭, 了達,  
太虛之辭, 哀怨, 有不同耳.

다. 秦觀의 <自作挽詞>

秦少游, 「自作挽詞」云, 嬰嬰徙窮荒, 茹哀與世辭. 官來錄我橐, 吏來驗我屍.  
藤束木皮棺, 藁葬路傍陂. 家鄉在萬里, 妻子天一涯. 孤魂不敢歸, 惴惴猶在茲.  
昔忝柱下史, 通籍黃金閨. 奇禍一朝作, 飄零至於斯. 弱孤未堪事, 返骨定何時.  
脩途繚山海, 豈免從閨維. 荼毒復荼毒, 彼蒼那得知. 歲晚瘴江急, 鳥獸鳴聲悲.  
空濛寒雨零, 慘淡陰風吹. 殯宮生蒼蘚, 紙錢掛空枝. 無人設薄奠, 誰與飯黃縑.  
亦無挽歌者, 空有挽歌辭.

라. 胡仔의 詩話 중 蘇軾이 <의만가사>와 <自作挽詞>를 비교 평가한 것  
에 대한 비판

胡荅溪云, 東坡歲在庚辰六月二十五日, 與秦少游, 別於海康, 意色自若, 與  
平日無少異, 而少游<自作挽詞>一篇, 人或怪之, 坡謂其齊生死了物我, 戲出此  
語, 其言過矣. 此言惟淵明可以當之, 若少游者, 情鍾世味, 意戀生理, 一經遷謫,  
不能自釋, 遂快忿而作此詞, 豈眞若是乎?

제시된 연보는 정확히 누가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는데,<sup>49)</sup> 여기에 도  
연명의 <의만가사>가 <자제문>과 마찬가지로 그가 세상을 떠나던 63세  
때 지어졌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어 胡仔가 『荅溪漁隱叢話』에서 “淵明自  
作「擬挽歌辭三章」, 秦太虛亦效之. 余謂淵明之辭了達, 太虛之辭哀怨, 有不  
同耳.”<sup>50)</sup>라고 언급한 부분과 秦觀의 <自作挽詞>, 그리고 蘇軾이 <의만가

49) 이 年譜는 누가 쓴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金程宇에 따르면 『精刊補註東坡和陶  
詩話』에는 그 동안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진 3종의 도연명 연보가 수록되어 있어서  
문헌적 가치가 높다고 한다. 李燾의 <陶潛新傳>, 楊格과 黃公紹가 찬한 도연명 연보  
가 그것이다. 金程宇는 <의만가사> 시 아래 인용된 연보의 작자를 楊格이나 黃公紹  
일 수도 있다고 추정하였다. 金程宇, 앞의 글, 184면.

50)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에 실린 胡仔의 평어는 실제 『荅溪漁隱叢話』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동일한 내용이다. 吳文治 主編, 『宋詩話全編』肆, 南京: 鳳凰出版  
社, 1998, 3967면, “淵明自作挽辭, 秦太虛亦效之. 余謂淵明之辭了達, 太虛之辭哀怨.”

사>와 <自作挽詞>를 비교 평가한 것과 이에 대한 胡仔의 비판이 차례로 나온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기 중국도서의 유입상황에 대해 우리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주석 내용을 감안해 볼 때 김종직이 관련 정보를 얻은 곳은 도연명 문집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우연히 秦觀의 문집이나 胡仔의 詩話에서 얻은 정보라고 하기도 어렵다. 이 시에 대한 김종직의 깊은 이해는 『精刊補注東坡和陶詩話』의 주석과 부기된 평어를 통해서 얻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책에서 본 정보를 기반으로 김종직은 남효온의 자만시가 그들의 자만시와 어떻게 다른 지까지 부연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리라. 현전 자료 중 첫 번째 본격적 자만시에서 이미 작가뿐만이 아니라 주변인들까지도 작품과 관련된 심도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된다는 것은 자만시에 관한 정보나 인식들이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이들이 도연명과 <의만가사>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그런 면에서 김종직의 평가는 남효온의 자만시에 대한 일회적 언급이라기보다 최소한 그들을 포함한 一群의 문인들 사이에 공유되던 정보와 생각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점은 <의만가사>만이 아니라 當代 도연명이란 시인에 대한 재인식과도 무관하지 않은 문제다. 김종직의 문집을 열어 보면 도연명의 <述酒> 시에 화운한 작품이 보이는데, 并序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내가 젊어서 도연명의 <述酒>詩를 읽고 자못 그 뜻을 알지 못했다가, 뒤에 和陶詩에 대한 湯東澗(湯漢)의 註疏를 본 다음에야 零陵(東晉 恭帝)을 위한 哀詩임을 알게 되었다. 아, 湯公이 아니면 劉裕의 篡弒한 죄와 도연명의 忠憤 어린 뜻이 거의 숨겨질 뻔하였다. (도연명이) 隱語를 쓰기 좋아한 것은 바로 그의 생각에 유유가 이 때에 한창 날뛰는지라 나의 힘이 용납될 수가 없는 형편이니, 나는 다만 몸이나 깨끗하게 할 뿐이요, 말 가운데 그런 일을 드러내서 滅族의 화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던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천 년 뒤에 태어났는데 유유에게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러므로 유유의 흥역한 행위를 다 드러내서 唐公의 주소 끝에 부치노니, 후세의 亂臣賊子가 나의 시를 보고 두려워 할 줄을 알게 된다면 이 또한

삼가 『春秋』의 一筆에 비견될 일이라.<sup>51)</sup>

이상의 내용을 보면, 이들의 도연명 문학에 대한 계승 작업이 劉裕의 왕위 찬탈에 대한 저항이라는 정치적 맥락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재인식에 南宋 湯漢의 주석이 큰 역할을 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湯漢의 주석은 <述酒>시 解釋史에서 볼 때도 중요하다. 청대 吳騫에 따르면, <述酒> 시의 의미를 세밀히 풀이하여 도연명의 숨겨진 진심을 처음 세상에 드러낸 이가 바로 湯漢이라고 한다.<sup>52)</sup> 湯漢의 주석은 그 자신이 주를 단 『陶靖節先生詩』나, 湯漢의 주석을 集錄한 이공환의 『箋注陶淵明集』 등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굳이 和陶詩에 대한 湯東澗(湯漢)의 註疏라고 한 것을 보면 김중직이 실제 본 책은 蔡正孫이 편찬한 『精刊補注東坡和陶詩話』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책의 卷十三에는 <述酒> 시가 수록되어 있고, 그 밑에 湯漢의 주 등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陶靖節先生詩』는 조선시대 유입되었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김중직의 이 和陶詩는 사후 큰 문제를 야기하는데, 盧思愼·尹弼商·韓致亨 등으로부터 <弔義帝文>보다도 심한 글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김중직이 陶淵明의 <述酒>詩에 화답하였는데, 그 서문에 이르기를,  
“...(중략)...”

51) 金宗直, <和陶淵明述酒 并序>, 『佔畢齋集』 卷十一, 한국문집총간 12, 민족문화추진회, 1989, 294면, “余少讀述酒, 殊不省其義, 及見和陶詩湯東澗註疏, 然後知爲零陵之哀詩也. 嗚呼, 非湯公, 劉裕篡弒之罪, 淵明忠憤之志, 幾乎隱矣. 其好爲瘞詞者, 其意以爲裕方猖獗, 于時不能以容吾力, 吾但潔其身耳, 不可顯之於言語, 自招赤族之禍也. 今余則不然, 生於千載之下, 何畏於裕哉. 故畢露裕凶逆, 以附湯公註疏之末, 後世亂臣賊子, 覽余詩而知懼, 則竊比春秋之一筆云.” 번역문은 임정기가 국역한 『점필재집』의 내용을 필자가 조금 다듬은 것이다.

52) 吳騫, 『拜經樓詩話』 卷三, 王夫之 等 撰, 『清詩話』,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758면. “陶靖節詩, 大率和平沖淡, 無艱深難讀者. 惟<述酒>一篇, 從來多不得其解, 或疑有舛謬. 至宋韓子蒼始決爲哀零陵王而作, 以時不可顯言, 故多爲瘦辭隱語以亂之. 湯文清漢復推究而細釋之, 陶公之隱衷, 始曉然表白於世.” 물론 <述酒>시가 哀帝(零陵)을 애도하는 시라는 것을 지적한 것은 송대 韓子蒼부터 이다. 하지만, 이것을 주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풀이한 것은 湯漢이라고 볼 수 있다.

하였는데, 그 詩는 없어졌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이 서문에 말한 것은 <조의제문>보다도 심한 점이 있어서 차마 말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그 시권을 올린 뒤 그 뜻을 해석하기를,  
“그 ‘이는 零陵을 애도하는 시다.’라고 한 것은, 영릉을 魯山에 비한 것이  
요, 그 ‘劉裕의 篡弒의 죄’라 함은 유유를 세조에게 비한 것이요, 그 ‘『춘추』  
의 일필에 비교한다.’ 함은 孟子가 ‘『춘추』가 지어지자 난신적자가 두려워했  
다.’ 말했으므로 『춘추』에 비한 것이요, 그 ‘창천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여  
높이 요순의 훈업을 읊한다.’ 함은, 유유의 受禪을 세조에게 비한 것이옵니  
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으랴! 그 제자마저 모조리 推覈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노사신이 首倡하여 윤필상·한치형과 아뢰기를,  
“연루자는 마땅히 국문해야 할 것이오나 만약 제자라 해서 모조리 추핵한  
다면 소요를 이룰까 걱정이옵니다. 東漢이 黨人 다스리기를 너무 심하게 하  
여 종말에 衰亂하였으니, 지금 蔓延시킬 수 없습니다.” 하였다.<sup>53)</sup>

주지하는 것처럼 <조의제문>은 제자 金駟孫이 史官으로서 이 글을 史  
草에 수록하여 훗날 戊午土禍가 일어나게 만든 문제의 글이다. <조의제  
문>이 단종을 義帝에 빗대어 세조의 왕위찬탈을 비난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 것처럼 <述酒> 시 역시 零陵(단종)을 애도하는 시로서 劉裕(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난했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다. 본래 이 혐의를 씌운 주도  
자는 柳子光이었는데, 그의 음모에 노사신 등이 휘말려 이 같은 사단이  
일어난 것이다.<sup>54)</sup> 따라서 무오사화의 단초가 된 김종직의 和陶詩는 한편  
으로 이들의 도연명 시 화운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확인시켜 준다. 비슷  
한 시기 金時習 역시 다수의 和陶詩를 남겼던 것 등을 감안한다면, 부정  
한 정치현실에 대한 은밀한 비판이란 측면에서 도연명의 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sup>55)</sup> 조선 전기 『도정절집』 간행과 관련되었거나

53) 『연산군일기』 4년 무오(1498) 7월 17일 (신해)조 참조.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  
원 DB의 『조선왕조실록』 국역본에서 가져온 것으로 필자가 조금 수정하였다.

54) 관련 내용이 南袞이 쓴 「柳子光傳」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화도시 창작을 한 인물들이 갖는 특성들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須溪校本陶淵明詩集』을 간행한 尹皙(1435-1503)이 사후 甲子士禍(1504)에 剖棺斬屍되었던 것은 김종직과 남효온의 일을 연상시키는 바가 있다. 김종직은 앞서 무오사화(1498년)로 부관참시되었고, 남효온은 같은 해 昭陵복위를 상소한 것이 亂臣의 예로 규정되어 부관참시되었기 때문이다. 또 앞서 언급한 김시습이 도연명에 공감하여 화도시를 60여수나 창작했던 것은, 그와 정신적으로 교감했던 남효온의 자만시 창작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사례들은 도연명이란 인물과 그에 대한 문학적 숭모로서의 和陶詩가 당대 정치상황과 맞물려 새롭게 재인식된 계기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조선 전기에 도연명집 못지않게 『精刊補注東坡和陶詩話』가 문단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 전기에 자만시를 남긴 작가 다수가 士禍에 희생되거나 화를 입은 인물인 것이 결코 우연만은 아니라고 하겠다.<sup>56)</sup>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후기 간본들의 주석 삭제는 이 시를 이해하는 데서도 일정한 편향성을 만들어내었다. 바로 자만시를 遺言의 작품이나 臨終詩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본래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어지는 임종시는 자신의 죽음을 가정하고 시적 화자(죽은 나)가 자신의 喪葬禮를 돌이켜보는 내용의 자만시와는 다른 것이다. 『文選』에 임종시와 자만시를 달리 분류하고 있는 데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sup>57)</sup> 후기에 창작된 자만시 중 상당수가 이런 구분 없이 지어진 데에

55) 이 점은 蘇軾이 도연명의 시를 단순히 ‘본뜬 것[擬]’이 아니라 ‘追和’했던 의식과도 일정 부분 관련될 것이다. 『精刊補注東坡和陶詩話』가 『東坡和陶詩』에 대해 주석과 평을 단 것이기 때문이다. 胡仔, 『苕溪漁隱叢話』前集, 卷第三, 吳文治 主編, 『宋詩話全編』肆, 南京: 鳳凰出版社, 1998, 3539면. “古之詩人有擬古之作矣, 未有追和古人者也, 追和古人, 則始於東坡.”

56) 대표적 인물로 언급한 남효온 외에도, 갑자사화 때 화를 당한 洪彦忠(1473-1508) 辛巳誣獄 때 죽음을 맞은 奇遵(1492-1521), 乙巳士禍로 인해 19년 간의 유배생활을 한 盧守愼(1515-1590) 등을 들 수 있다.

57) 『文選』에선 歐陽建의 임종시를 詠懷로, 도연명의 <의만가사>를 挽歌로 분류한 바 있다.

는 <의만가사삼수>에 대한 주석이 삭제된 것과는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기에 들어 자기표현적 자만시보다 임종시적인 자만시가 많아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58)</sup>

#### 4. 남는 문제

이상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刊本 및 通行本에 수록된 도연명의 <擬挽歌辭三首>에 대한 문헌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 작품이 조선 전기 문인들에게 수용된 경로와 그것이 자만시 창작에 미친 영향을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조선 전기에 비해 후기 간본이 가진 한계로 인해 후기 자만시 창작이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였고, 전기의 경우 蘇軾의 和陶詩에 대한 주석서 성격의 『精刊補注東坡和陶詩話』가 도연명에 대한 재인식은 물론 자만시 창작에도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조선시대 문인들의 도연명 <의만가사>에 대한 수용 경로나 이해 방식이 모두 이와 같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상당수의 작품은 정확한 수용 경로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중국 도서의 직접 유입을 포함한 전대 문헌 자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재한 현실에서 분명히 밝혀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에선 필자가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미진한 부분도 적지 않다. 또 <의만가사삼수>에만 초점을 맞추어 검토했던 까닭에 거시적인 부분에선 충분한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한 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조선 간본 도연명집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함께 보완될 필요가 있다.

58) 이에 관해서는 줄고, 앞의 논문, 2014.12, 469-470면을 참조할 것.

## 참고문헌

### 원전·역주류

- 『陶淵明集』 8권, 明 李夢陽 편, 국립중앙도서관 제공본.(원 하버드대 앤칭 도서관 소장본)
- 『陶靖節集』 2권, 明 何湛之 校本,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 『陶靖節集抄』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 『須溪校本陶淵明詩集』, 3권, 미상,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 『箋註靖節先生集』, 10권, 元 李公煥,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 『精刊補注東坡和陶詩話』, 宋 蔡正孫,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 王叔岷 撰, 『陶淵明詩箋證稿』, 北京: 中華書局, 2007, 496-504면.
- 袁行霈 箋注, 『陶淵明集箋注』, 北京: 中華書局, 2003, 420-427면.
- 임준철 역주, 『내 무덤으로 가는 이 길: 조선시대 自挽詩 역주 평설』, 문학동네, 2014.

### 연구논저류

- 郭紹虞, 「陶集考辨」, 『照隅室古典文學論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258-326면.(이 글은 본래 1936년 12월에 출간된 『燕京學報』 第20期에 수록되었던 것임)
- 橋川時雄, 『陶集版本原流攷』, 新鉛活字本(中國), 北京: 文字同盟社, 1931.
- 金程宇, 「高麗大學所藏『精刊補注東坡和陶詩話』及其價值」, 『稀見唐宋文獻叢考』, 北京: 中華書局, 2008, 170-192면.(이 글은 본래 『文學遺產』 2008年 第5期에 수록되었던 것임)
- 박철상, 「磻溪 柳馨遠인 엮은 『陶靖節集』과 그의 逸民意識」, 『한국실학연구』 11, 한국실학학회, 2006, 217-237면.

- 이현우, 「朝鮮 後期の 無刊記 刊本 《陶靖節集》에 관한 고찰」, 『중국어문논총』 제49집, 중국어문연구회, 2011, 153-180면.
- 임준철, 「한국 한시에서의 陶淵明 <擬挽歌辭>의 수용과 변주」, 『한국한시연구』 21, 한국한시학회, 2013, 291-332면.
- , 「陶淵明의 <擬挽歌辭三首>와 조선시대 자만시-韓中 자만시 비교 (1)-」, 『대동한문학』 제41집, 대동한문학회, 2014, 459-493면.
- 홍서연, 「朝鮮本 《정간보주동과화도시화(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에 대한 문헌적 고찰」, 『중국어문논총』 제54집, 중국어문연구회, 2012, 229-263면.
- 황선주·楊焄, 「한국본 《精刊補注東坡和陶詩話》校讀」, 『중국어문학논집』 제71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11, 347-368면.
- , 「한국본 도연명집의 서지적 연구」, 『과학과 문화』 제9권 1호, 서울대학교 미래창조연구원, 2012, 67-99면.
- , 「목판본 『箋註靖節先生集』의 서지 문제」, 『중국어문학논집』 제77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12, 591-606면.
- , 「李夢陽本 『陶淵明集』의 계통」, 『중국어문학논집』 제83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13, 397-417면.

<Abstract>

Taojingjieji陶靖節集 and Self-elegy in Joseon  
-Focusing on reception of Trilogy of Pseudo  
Self-elegy擬挽歌辭三首-

Lim, Jun-chul

Tao Yuanming's Trilogy of Pseudo Self-elegy(擬挽歌辭三首, hereinafter "Trilogy") were introduced to Joseon literati mainly through several versions of Tao Yuanming Anthology — some were published in Joseon, some were imported from China. Though it is not known exactly how Chinese versions were imported, according to the data until now, there are five versions of Tao Yuanming Anthology published in early Joseon and two in late Joseon. And there also is a manuscript by Yoo Hyong-won. In addition to it, Comments on Dongpo's Responsive Poetry to Tao Yuanming with Fine Print and Supplemented Notes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 hereinafter "Comments") had an influence on reception of Trilogy.

In this article, I examined Tao Yuanming's Trilogy in several editions in Joseon to figure out how this work was introduced to Joseon literati and how it influenced on Self-elegy writings of Joseon. As a result, I assume Self-elegy writings in late Joseon are biased due to the limits of versions distributed in that era. And in early Joseon, the Comments had a great influence on understanding of Tao Yuanming and Self-elegy writings.

But it needs further research to understand how Joseon literati received Tao Yuanming's Trilogy. This article mainly focused on the Trilogy, so did

not fully progress discussion from the wider perspective. These problems will be complemented with further examinations on Tao Yuanming Anthology publications in Joseon Dynasty in progress.

Key words : 『Taojingjieji(陶靖節集)』, Joseon, Self-elegy poetry, Tao Yuanming, 「Trilogy of Pseudo Self-elegy(擬挽歌辭三首)」, 『Comments on Dongpo's Responsive Poetry to Tao Yuanming with Fine Print and Supplemented Notes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

투고일 : 2015년 7월 13일, 심사 : 7월 17일 ~ 8월 13일, 게재확정 : 8월 13일

